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잊지 말아야”

이승철, KBS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절절한 사연에 눈물이 났죠”

“전 세계에 우리가 몰랐던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많더라고요. 생존해 계신 해외 참전용사들이 이제 몇 분 안 되는데 잊히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가수 이승철(51·사진)이 KBS와 손잡고 세계 각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의 녹음실에서 인터뷰한 이승철은 “내년 한국전쟁 기념일 즈음 방송될 예정”이라며 대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전국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참전국을 열거하며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는지 몰랐다”며 “19살 약혼자를 두고 전쟁을 치르고서 이 땅에 묻힌 분도 있다. 타국에서 젊음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알리고 고마운 마음을 갖자는 취지에서 직접 출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해외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것은 2015년, 유엔대로 한국 땅에 묻힌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베르나르 씨와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이승철은 2010년 국가보훈처의 초청으로 해외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사인 CD와 편지를 전달하며 베르나르 씨를 알게 됐다. 작고한 이승철의 부친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용사였다. 이후 이승철은 베르나르 씨의 프랑스 자택을 방문했고 2011년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공연에 베르나르 씨 등 참전용사 가족을 초대해 ‘아리랑’을 들려줬다. 베르나르 씨의 유해가 한국 땅을 밟았을 때는 공황으로 직접 나가 눈물을 흘렸고, 장례식에서 추도사도 낭독했다.

이승철은 “방송 작가들과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다 보니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다”며 “한국을 위해 애쓴 분들을 재조명해 초등학생인 둘째 딸 윈이 또래 어린이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반기부터 전국투어 중인 그는 지방 공연 때마다 딸 윈이와 함께 인권의 역사적인 장소나 유적지를 둘러본다고 했다.

“얼마 전엔 전남 공연이 끝나고 윈이를 데리고 독립기념관에 갔어요. 합천 해인사에 들러 팔만대장경도 봤고요. 저도 딸과 함께 새롭게 배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간 교도소 재소자, 대안학교 학생, 탈북청년 등의 합창단을 지휘하고 각종 나눔 활동을 펼친 그는 음악을 하는 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간 아프리카 차드에 학교 10개를 설립한다는 목표로 6년째 굿네이버스에 공인 티켓 수익금과 개런티 등을 기부하고 있다. 1년에 5억 원씩 전달해 현재 5개 학교가 완공됐고 6번째 학교를 짓고 있다.

이런 활동은 교육자이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책임



감이 더욱 생긴다고 했다.

“외할아버지가 서울 대신고등학교 설립자로 아버지가 학생 주임이셨고, 어머니도 선생님이셨죠. 차드에 갈 때면 아버지가 학교 한편의 담장에서 닭을 기르면서 학교를 일구던 모습이 떠올라요.”

특히 아내의 조언 덕에 나누고 봉사하는 기쁨을 알게 됐다면 서가정이 길을 만들어준 것 같다고 애뜻함을 나타냈다.

그는 “가족은 내게 방파제나 방화벽 같다”고 비유하며 “설령 내가 인기가 없어 노래를 못하는 힘든 삶이 찾아와도 가족이 있기에 크게 두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안 가족과 캠핑카를 타고서 산과 바다를 다니는 재미에 빠져있었다는 그는 캠핑에서 직접 만든 밀푼유 나베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2005년 요리책을 냈을 정도로 음식 솜씨가 있다.

“외국을 주로 다녔지만 우리나라에도 좋은 곳이 많아요. 덕유산, 오대산, 대부도 등지에서 캠핑했는데 윈이가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인 이 시기밖에 못 하는 일인 것 같아요. 훗날 세상을 떠날 때 돈을 못 가져가도 추억은 갖고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연립뉴스

‘토르 : 라그나로크’ 3주째 박스 오피스 1위

누적 관객 수 428만 돌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토르 : 라그나로크’(사진)가 3주째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1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토르 : 라그나로크’는 11~12일 38만6332명을 동원하며 지난달 25일 개봉 이후 3주 연속 주말 흥행 1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428만2617명으로 늘었다.

신작 ‘해피 데스데이’가 관객 수 33만8891명으로 2위였다. 8일 개봉한 이 영화는 미국 대학가를 배경으로 공포와 유머를 섞은 ‘호러테이닝’ 영화다.

마동석 주연의 영화 두 편이 나란히 3~4위를 차지했다. 마동석과 이동휘가 호흡을 맞춘 코미디 ‘부라더’가 관객 24만6천529명으로 3위, ‘범죄도시’는 13만7100명으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부라더’는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범죄도시’(667만)는 올해 한국영화 흥행순위 4위에 올랐다.

김혜수·이선균 주연의 누아르 영화 ‘미옥’은 주말 이틀간 관객 9만8536명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이 영화는 개봉일인 8일 2위로 출발했으나 첫 주말부터 흥행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누적 관객 수는 19만2754명이다.



최민식 주연의 ‘침묵’은 4만7502명의 관객을 끌어들이며 6위에 올랐다. 2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50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9일 개봉한 고두심·김성준 주연의 가족영화 ‘재비’는 7위로 첫 주말을 출발했다.

‘극장판 파워레인저 : 에니멀포스 VS 니자포스 미래에서 온 메시지’와 ‘러빙 빈센트’가 8~9위를 차지했다. 이번 주말 10위를 기록한 일본 멜로영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는 개봉 19일 만에 4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연립뉴스

이선균·아이유, tvN ‘나의 아저씨’서 호흡

내년 상반기 방영 예정

18살 차이가 나는 이선균(42)과 아이유(24)가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tvN은 내년 상반기 수목극으로 방영 예정인 ‘나의 아저씨’에 이선균, 아이유, 나문희, 오달수, 송세벽 등이 출연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오해영’의 박해영 작가와 ‘미생’, ‘시그널’을 히트시킨 김원석 PD가 손잡은 ‘나의 아저씨’는 아저씨 삼형제와 한 여자가 상대방의 삶을 바라보며 서로를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다.

이선균은 삼형제 중 둘째인 박동훈 역을 맡았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달리는 형과 동생 사이에서 안전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건축회사의 구조기술사다.

제작진은 “묵묵하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사랑스러운 중년의 아저씨”라고 소개했다.

아이유는 거칠고 차가운 성격의 이지만 역을 맡았다. 3개월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회사의 대표가 사주해 박동훈의 약점을 찾아내는 스파이 노릇을 하게 된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따뜻한 매력에 빠져드는 인물이다.



이선균

아이유

‘영화계 캐스팅 0순위’ 오달수가 삼형제의 말청 박상훈을 맡아, ‘도롱뇽도사와 그림자 조작단’ 이후 6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게 된다.

또 송세벽이 삼형제의 막내 박기훈을, 나문희가 삼형제의 어머니 변오순을 각각 맡았다.

연립뉴스

TV 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00 KBS 뉴스광장	15 철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30 KBC 모닝 730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30 KBS 뉴스	00 꽃피어달순아 40 여유 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국제상 수상작 시리즈 넥스트 휴먼 (재)		00 TV속의 TV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15 생생정보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정설계 (재)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건강혁명	00 특선다큐 (재)	0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25 헬로킴즈 동물교실	55 닥터 365
10 월요기획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공부책상 위기 2	20 텔레몬스터 25 특집 예니메이션 미투리 55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00 한국인의 밥상 50 UHD 한식 (재)	20 TV 유치원 50 유유만만 (재)	45 하하랜드 스페셜	
00 4시 뉴스집중			00 2018 불꽃연정대 55 닥터 36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5 숨터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드래곤에그 3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별별머드리 (재)	00 SBS 오뉴스 45 KBC지녁 뉴스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방송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00 영재발굴단
00 KBS 뉴스 7 35 특집다큐 2부작 어디서 누구와 살아야 할까? (재)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50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마녀의 법정 (재)	35 하하랜드 스페셜 55 별별머드리	
00 KBS 뉴스 9 40 시사기획 창			00 20세기 소년소녀
35 KBS 뉴스라인			00 사랑의 온도
05 세계건강기행 25 특선 영화 (집으로 가는 길)	10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0 불타는 청춘1~2부
	50 영화가 좋다 (재)	40 강가 : 인도의 영혼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지중해 맛기행 - 2부 지중해 슬로우 푸드>	09:40 정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칠리소스 연구새우 파볶음밥>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점오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40 세상의 모든 범죄(재)
07:45 출동! 슈퍼웬스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08:00 당동명 유치원1~2	13:40 성년 홀고기(재)
08:30 플라워링 하트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종합)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00 우주탐방기 잭
09:00 몬카트	
09:15 스피 루비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9:55 극한직업
15:30 오도트, 이상한 아이들	<겨울간식 최강자 만두와 찜빵>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0:40 다큐오늘
16:00 엄마 깨투리	<남도 바다의 맛>
16:15 두더다콩	20:50 세계테마기행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첫 눈이 내리면 시베리아 2부 사하족 그들이 사는 세상>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21:30 한국기행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21:50 EBS 다큐프라임
17:3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불멸의 마야 260일 달력, 출진>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나!~4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19:00 몬카트	<역마의 편집이 통하는 이유??>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4일 (음 9월 26일 乙巳)
子 48년생 처음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마지막에 극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60년생 상부상조를 잘 해 나간다. 72년생 과잉 현상은 돌발 상황을 예고한다. 84년생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차질을 빚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8, 89	午 42년생 장고한다면 참된 결론에 이른다. 54년생 이리저리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다. 66년생 상호 관련된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 78년생 낙담하게 마련해두는 것이 알차다. 90년생 되돌아 갈 수 없는 갈림길에 있다. 행운의 숫자 : 87, 58
丑 49년생 너무 앞서 가지 않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 볼 일이다. 61년생 너무 이변이 많아서 중흥무진 할 수도 있다. 73년생 진용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이다. 85년생 기본적인 바탕이 좋아야 추진되는 행군이 건설해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8, 66	未 43년생 진행에 탄력이 붙는 시세에 놓여 있다. 55년생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67년생 직접 만나서 다루어야 타겟 될 수 있는 일이다. 79년생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합리적이다. 91년생 확실한 어필이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8, 34
寅 50년생 형식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다. 62년생 간절히 바라던 일이 궁극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느니라. 74년생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86년생 상징성을 이해해야 속뜻을 파악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0, 02	申 44년생 생각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니 우려할 필요가 없다. 56년생 세심하게 챙길 일이다. 68년생 영욕의 부침이 심하여 그 파장, 또한 광장하다. 80년생 감정에 사로 잡혀서 자제하지 못한다면 재앙이 되어 돌아 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3, 63
卯 51년생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의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 나가야 할 때다. 63년생 이룬보다는 경험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75년생 단순 판단한다면 의외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87년생 대응소이다. 행운의 숫자 : 35, 91	酉 45년생 남에게 맡기지 말고 처리했을 때 우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57년생 고신은 금물이다. 69년생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어 왔던 바가 말썽을 부릴 수 있다. 81년생 대안이 없다면 현상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임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3, 43
辰 52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정된다. 76년생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임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88년생 상스러운 기운이 새롭게 썩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5, 70	戌 46년생 막연하지만 대단히 위험하다. 58년생 이면에 숨어 있는 변수들까지 감안해야 안전할 것이다. 70년생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82년생 부담스럽다는 것은 불가능성이 높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1, 54
巳 53년생 순리에 역행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65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반드시 언행으로써 표현해야 한다. 77년생 침착함을 잃는다면 연쇄적인 흉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89년생 예정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19, 80	亥 47년생 파격적인 행보가 있을 수다. 59년생 길사의 성립 조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정황이 역력하다. 71년생 지금 즉시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83년생 사세 부득이함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7, 23